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1)*

-권8, 15:04~16:17 부분을 중심으로-

황선엽**

요 약

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『유가사지론』 권8의 15장 4행부터 16장 17행까지의 잠정적인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.

*핵심어: 유가사지론, 점토구결

雜染施設建立은 ㉠煩惱雜染, ㉡業雜染, ㉢生雜染의 三種雜染으로 생겨나며 이들은 다시 각각 ①自性, ②分別, ③因, ④位, ⑤門, ⑥上品, ⑦顚倒攝, ⑧差別, ⑨過失의 9가지 연고로 말미암는다. 여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이 중 ㉡②業分別(09:21-20:20)의 일부이다.

業分別은 다시 [1]補特伽羅相差別, [2]法相差別의 2종 차별로 말미암는데 이 두 차별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善不善業道가 있다: ①(離)殺生, ②(離)不與取, ③(離)欲邪行, ④(離)妄語, ⑤(離)離間語, ⑥(離)麤惡語, ⑦(離)綺語, ⑧(離)貪欲, ⑨(離)瞋恚, ⑩(離)邪見.

아래의 내용은 이 중 [1]⑥麤惡語(14:09-15:12)의 뒷 부분과 [1]⑦綺

---

*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(2005년 6월 18일, 9월 24일)에서 강독한 요지문을 바탕으로,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.

**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.

語(15:13-16:03), ⑧貪欲(16:04-16:10), ⑨瞋恚(16:11-16:17)의 앞 부분에 해당한다.

<유가08 15:04-05>

A: 於現在世事[44(·),35(·),4자합부]及領受[2자합부-역독선]可愛樂[42(\),34(/),35(·),43(ㅣ)]故[21(·)]名[54(·)]可{42(·)}欣語[53(·)]及可意語[53(·),33(·),33~43(·)[1]]應知[42(\),51(·)]

B: 於現在世事[十,ㅋ]及領受可愛樂[ノ亠七,ソ丁乙,ㅋ,xㅠ]故[ノ]名[下]可欣語[ㅗ]及可意語[ㅗ,丁,卽]應知[ノ亠七,ㅣ]

C: {於}現在世事十(ソ)ㅋ 及 愛樂ノ亠{可}七ソ丁乙 領受(ソ)ㅋxㅠ {故}ノ 名下 可欣語ㅗ 及 可意語ㅗ(ソ)丁卽 知ノ亠{應}七ㅣ

D: 現在世의 일에 있어서나 (또한) 愛樂할 만한 것을 領受하거나 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可欣語니 可意語니 하는 것이니, 알아야 할 것이다,

E: 현재 세상의 일과 받아들임의 것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말이라 하고 뜻에 맞는 말이라 하나니,

<유가08 15:05-07>

A: 卽等歡喜語[34(·)]名[54(·)]无量衆生[23(·)]可愛可樂可欣可意語[53(·),55(:)]

B: 卽等歡喜語[乙]名[下]无量衆生[ㅋ]可愛可樂可欣可意語[ㅗ,x分]

C: 卽 等歡喜語乙 名下 无量 衆生ㅋ 可愛可樂可欣可意語ㅗx分

D: 곧 等歡喜語를 일컬어 无量 衆生의 可愛 可樂 可欣 可意語라고 하며

E: 곧 같이 기뻐하는 말에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사랑할 만하고 좋아

1) [33~43(:)](x卽)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.

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뜻에 맞는 말들인 줄 알아야 할 것이며,

<유가08 15:07>

A: 卽說法語[34(·)]名[54(·)]三摩呬多語[53(·),55(:)]

B: 卽說法語[乙]名[下]三摩呬多語[ㅗ,x分]

C: 卽 說法語乙 名下 三摩呬多語ㅗx分

D: 곧 說法語를 일컬어 三摩呬多[2]의 語이라고 하며

E: 곧 법을 말하는 말은 사마아히타의 말이라 하며,

<유가08 15:08-09>

A: 卽尸羅支[43(·)]所攝[+15~25(-),42(·)]語[34(·)]名[54(·)]由[역독선]无悔等[34(/),22(·),3자합부]漸[42(·)]次[43(·)]能[55(·)]引三摩地[34(·),15~24(/),42(·)]語[53(·),51(:)?]

B: 卽尸羅支[ㅱ]所攝[ノ尸,七]語[乙]名[下]由无悔等[ンㄱ乙,ㅋ]漸[七]次[ㅱ]能[分]引三摩地[乙,ンᄉ,七]語[ㅗ,xㅣ]

C: 卽 尸羅支ㅱ 攝ノ尸 所七 語乙 名下 无悔 等ンㄱ乙 由ㅋ 漸七 次ㅱ 能分 三摩地乙 引ンᄉ七 語ㅗxㅣ

D: 곧 尸羅支로 攝한 바의 말을 일컬어 无悔 等을 말미암아 점차로 능히 三摩地를 이끌 (수 있는) 말이라고 한다.

E: 곧 쉬일라 갈래에 포섭된 말은 뉘우침 없음 따위로 말미암아 점차로 사마아디를 이끌 수 있는 말이라 한다.

<유가08 15:09-10>

A: 此中[44(·)]毒螫語[51(·)]者[23~33(··)]謂毁辱他[34(·),15~24(/),

2) 三摩呬多(삼마희다): 마음을 統一함이란 뜻. 禪定의 一種으로 等引이라 번역한다. 定의 7가지 명칭 중의 하나로 <瑜伽師論地>에는 身心의 平安한 平等을 惹起하는 것이라 해석되어 있다.

42(·)]言[22~32(·),51(·)]縱瞋毒[34(·),43(ㅣ)]故[53(·)]

B: 此中[十]毒螫語[ㅣ]者[x入ㄱ]謂毁辱他[乙,ㄴ仝,七]言[ㅛ,ㅣ]縱瞋毒[乙,xᄆ]故[ㅗ]

C: 此 中十 毒螫語(ㅛ)ㅣ{者}x入ㄱ 謂 他乙 毁辱ㄴ仝七 言ㅛㅣ 瞋毒乙 縱xᄆ{故}ㅗ

D: 이 가운데에 毒螫語다 함은, 즉 남을 毁辱하는 말이다, 瞋毒을 제멋대로 풀어 놓는 까닭이다.

E: 이 중에, 해독된 말이라 함은 다른 이를 헐뜯는 말로서 성냄의 독이 제멋대로 굴게 하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5:10-11>

A: 麤獷語[51(·)]者[23~33(··)]謂惱亂他[34(·),15~24(/),42(·)]言[22~32(·),51(·)]發苦觸[34(·),43(ㅣ)]故[53(·)]

B: 麤獷語[ㅣ]者[x入ㄱ]謂惱亂他[乙,ㄴ仝,七]言[ㅛ,ㅣ]發苦觸[乙,xᄆ]故[ㅗ]

C: 麤獷語(ㅛ)ㅣ{者}x入ㄱ 謂 他乙 惱亂ㄴ仝七 言ㅛㅣ 苦觸乙 發xᄆ{故}ㅗ

D: 麤獷語다 함은, 즉 남을 惱亂하게 하는 말이다, 苦觸을 일으키는 까닭이다.

E: 거칠고 사나운 말이라 함은 다른 이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말로서 괴로움의 닿임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5:11-12>

A: 所餘[42(·)]麤惡語[33(·)]翻[역독선]前[42(·)]白品[34(·),33~43(/)]應知[42(\),51(·)]

B: 所餘[七]麤惡語[ㄱ]翻前[七]白品[乙,ㄴㄱ 卬]應知[ノ亠七,ㅣ]

C: 餘 所七 麤惡語ㄱ 前七 白品乙 翻ㄴㄱ 卬 知ノ亠{應}七ㅣ

D: 남은 바의 麤惡語는 앞의 白品을 뒤집은 것이니, 알아야 할 것이다.

E: 그 밖에 추악한 말은 앞의 깨끗한 품류와는 반대인 것으로 알아야 하리라.

<유가08 15:13>

A: 復次[23(·)]諸綺語者[51(·)]者[23~33(··)]此[33(·)]是捻句[22~32(·),55(·)]

B: 復次[ㅋ]諸綺語者[ㅣ]者[xㅅㄱ]此[ㄱ]是捻句[ㅐ,ㅀ]

C: 復 次ㅋ 諸 綺語者(ㅐ)ㅣ{者}xㅅㄱ 此ㄱ 是 捻句ㅐㅀ

D: 또 다음으로 모든 綺語者다 하는 것은, 이는 捻句이며

E: 또, 비단말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다.

<유가08 15:13-14>

A: 於邪[23(·)]擧罪[15~24(/),42(·)]時[53(·),44(·)]有{45(·)}五種邪擧罪者[51(·)]

B: 於邪[ㅋ]擧罪[ㅅㅎ,ㄴ]時[ㅗ,十]有五種邪擧罪者[ㅣ]

C: {於}邪ㅋ 擧罪ㅅㅎㄴ 時ㅗ十 五種 邪擧罪者 有ㅣ

D: 삿되게 擧罪할 때에 다섯 가지 邪擧罪者가 있다.

E: 사뙤게 허물을 들 적에 다섯 가지가 있다.

<유가08 15:14-15>

A: 言[22~32(·)]不應時[44(·),43(ㅣ)]故[21(·)]名非時語者[53(·),55(:)]

B: 言[ㅐ]不應時[十,xᄭ]故[ㅅ]名非時語者[ㅗ,xㅀ]

C: 言ㅐ 時十 不應xᄭ{故}ㅅ 名(下) 非時語者ㅗxㅀ

D: ①말이 時에 不應한 까닭으로 일컬어 非時語者라고 하며

E: (사뙤게 허물을 드는 이라 함은)[3]말함이 마땅한 때가 아니기 때

문에 때 아닐 적에 말하는 이라 하며,

<유가08 15:15>
A: 言[22~32(·)]不實[43(ㅣ)]故[21(·)]名[54(·)?]非實語者[53(·),55(:)]
B: 言[ㅢ]不實[x〰]故[ㅅ]名[ㅜ]非實語者[ㅗ,xㅎ]
C: 言ㅢ 不實x〰{故}ㅅ 名ㅜ 非實語者ㅗxㅎ
D: ②말이 不實한 까닭으로 일컬어 非實語者라고 하며
E: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이라 하며,

<유가08 15:16>
A: 言引无義[34(·),43(ㅣ)]故[21(·)]名[54(·)]非義語者[53(·),55(:)]
B: 言引无義[ㄹ,x〰]故[ㅅ]名[ㅜ]非義語者[ㅗ,xㅎ]
C: 言(ㅢ) 无義ㄹ 引x〰{故}ㅅ 名ㅜ 非義語者ㅗxㅎ
D: ③말이 无義를 이끄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義語者라고 하며
E: 말이 이치 없는 것을 이끌기 때문에 이치 아닌 말을 하는 이라 하며,

<유가08 15:16-17>
A: 言[22~32(·)]麤獷[43(ㅣ)?]故[21(·)]名[54(·)]非法語者[53(·),55(:)]
B: 言[ㅢ]麤獷[x〰]故[ㅅ]名[ㅜ]非法語者[ㅗ,xㅎ]
C: 言ㅢ 麤獷x〰{故}ㅅ 名ㅜ 非法語者ㅗxㅎ
D: ④말이 麤獷한 까닭으로 일컬어 非法語者라고 하며
E: 말이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법답지 않은 말을 하는 이라 하며,

---

3) 역경원 번역이 구결문과 맞지 않는다. <유가사지론> 권8의 각필 현토자와는 달리, '有五種'에서 구절을 끊어 번역하였다.

<유가08 15:17-18>

A: 言[22~32(·)]挾[역독선]瞋恚[34(·),43(ㅣ)]故[21(·)]名[54(·)]非靜語者[53(·),51(:)]

B: 言[ㅐ]挾瞋恚[乙,xᄭ]故[ㅅ]名[下]非靜語者[ㅗ,xㅣ]

C: 言ㅐ 瞋恚乙 挾xᄭ{故}ㅅ 名下 非靜語者ㅗxㅣ

D: ⑤말이 瞋恚를 지니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靜語者라고 한다.

E: 말이 성을 지녔기 때문에 고요하지 않은 말을 하는 이라 한다.

<유가08 15:18-19>

A: 又於邪[23(·)]說法[=15~24(ㅅ),42(·)]時[53(·),44(·)]不正思審[=22(·),4자합부]而[43(·)]宣{43(ㅣ)}說[43(ㅣ)]故[21(·)]名[=54(·)]不思量語[53(·),55(:)]

B: 又於邪[ㅋ]說法[ㅅᄉ,ㄴ]時[ㅗ,十]不正思審[ㅈ]而[ᄭ]宣說[xᄭ]故[ㅅ]名[下]不思量語[ㅗ,xᄀ]

C: 又 {於}邪ㅋ 說法ㅅᄉㄴ 時ㅗ十 不正思審(ㅅ)ㅈ 而ᄭ 宣說xᄭ {故}ㅅ 名下 不思量語ㅗxᄀ

D: 또 삿되게 설법할 때에 不正思審하여 宣說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不思量語라고 하며

E: 또, 사뙤게 법을 말할 적에는,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지 않으면서 널리 말하기 때문에 헤아리지 않은 말이라 하며,

<유가08 15:19-20>

A: 爲勝聽者[34(·),삐침선(31,\)]而[43(·)?]宣說[43(ㅣ)]故[21(·)]名[54(·)]不靜語[53(·),55(:)]

B: 爲勝聽者[乙]而[ᄭ]宣說[xᄭ]故[ㅅ]名[下]不靜語[ㅗ,xᄀ]

C: 聽者乙 勝 爲 而ᄭ 宣說xᄭ{故}ㅅ 名下 不靜語ㅗxᄀ

D: 聽者를 勝하기 위하여 宣說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不靜語라고 하며

E: 듣는 이에게 이기기 위하여서 널리 말하기 때문에 고요하지 않은 말이라 하며,

<유가08 15:20-21>

A: 非時[44(·)]而[43(·)]說[22(·)]前後義趣[22~32(·)]不相屬[43(ㅣ)]故[21(·)]名[54(·)]雜亂語[53(·),55(:)]

B: 非時[ㅓ]而[ᄭ]說[ᄉ]前後義趣[ㅐ]不相屬[xᄭ]故[ㅅ]名[ㅜ]雜亂語[ㅗ,xᄀ]

C: 非時ㅓ 而ᄭ 說(ㅅ)ᄉ 前後 義趣ㅐ 不相屬xᄭ{故}ㅅ 名ㅜ 雜亂語ㅗxᄀ

D: 非時에 말하여 前後 義趣가 不相屬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雜亂語라고 하며

E: 때 아닌데도 말하고 앞과 뒤의 뜻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뒤섞여 어지러운 말이라 하며,

<유가08 15:21-22>

A: 不中理[33(/),구결자(ㅅㄱ)]因[43(·)]而[43(·)]宣說[43(ㅣ)]故[21(·)]名[54(·)]非有教語[53(·),55(:)]

B: 不中理[ㅅㄱ]因[ᄭ]而[ᄭ]宣說[xᄭ]故[ㅅ]名[ㅜ]非有教語[ㅗ,xᄀ]

C: 不中理ㅅㄱ 因ᄭ 而ᄭ 宣說xᄭ{故}ㅅ 名ㅜ 非有教語ㅗxᄀ

D: 不中理하는 원인으로 宣說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有教語라고 하며

E: 이치와 원인에 맞지 않는데도 널리 말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지 않은 말이라 하며,

<유가08 15:22-23>

A: ᄅᆡ[역독선]不相應[=34(/)#35(/),22(·)]爲譬況[24(·),43(ㅣ)]故[21(·)]

名[54(·)]非有喩語[53(·)?,55(:)]

B: 引不相應[ㅅㄱ乙,ㅋ]爲譬況[ㅋ,x灬]故[ノ]名[下]非有喩語[亠,x分]

C: 不相應ㅅㄱ乙 引ㅋ 譬況{爲}ㅋx灬{故}ノ 名下 非有喩語亠x分

D: 不相應하는 것을 이끌어 비유 삼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有喩語라고 하며

E: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이끌어서 비유로 삼기 때문에 비유가 있지 않은 말이라 하며,

<유가08 15:23>

A: 顯[역독선]穢染[34(·),=43(ㅣ),2자합부]故[21(·)]名[=54(·)]非有法語[53(·),51(:)]

B: 顯穢染[乙,x灬]故[ノ]名[下]非有法語[亠,xㅣ]

C: 穢染乙 顯x灬{故}ノ 名下 非有法語亠xㅣ

D: 穢染을 드러내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有法語라고 한다.

E: 더럽고 물듦을 드러내기 때문에 법이 있지 않은 말이라고 한다.

<유가08 15:23-16:02>

A: 又於歌笑嬉戱{32~42(·)}等[15~24(/),42(·)]時[31(·)]及觀[역독선]舞樂戱笑俳[5자합부?]說{=23~33(·)}等[34(/),15~24(/),42(·)]時[31(·),44(·)]有[역독선]引无義[34(·),=15~24(/),42(·)]語[51(·)]

B: 又於歌笑嬉戱等[ソ今,七]時[人]及觀舞樂戱笑俳說等[ㅅㄱ乙,ソ今,七]時[人,十]有引无義[乙,ソ今,七]語[ㅣ]

C: 又 {於}歌笑嬉戱等ソ今七 時人 及 舞樂戱笑俳說 等ㅅㄱ乙 觀ソ今七 時人十 无義乙 引ソ今七 語 有ㅣ

D: 또 歌笑嬉戱 등의 때와 (및) 舞樂戱笑俳說 등을 구경할 때에 无義를 이끄는 말이 있다.

E: 또, 노래하고 웃고 재미있게 놀 때와 춤과 음악과 익살과 광대

놀이 따위를 구경할 때에는 이치 없는 말을 인용하게 된다.

<유가08 16:02-03>

A: 此中[22(·),42(·)]略義[22~32(·)]者[15~25(-),23~33(·)]謂[33(·)?]顯[역독선]如前[23(·)]說[11~21(\)[4],33(/)]三時綺語[34(·),51(:)]

B: 此中[ㅈ,ㄴ]略義[ㅛ]者[ㄱ,ㅅㄱ]謂[ㄱ]顯如前[ㅋ]說[ㄴㄱㅌ,ㅅㄱ]三時綺語[ㄹ,xㅣ]

C: 此 中ㅈㄴ 略義ㅛ{者}ㄱㅅㄱ 謂ㄱ 前ㅋ 說ㄴㄱㅌ {如}(ㅊ)ㅅㄱ 三時綺語ㄹ 顯xㅣ

D: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, 즉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三時綺語를 나타내는 것이다.

E: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,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때의 비단말을 나타냄을 말한다.

<유가08 16:04>

A: 復次[23(·)]諸貪欲者[51(·)]者[23~33(··)]此[33(·)]是捻句[55(·)][5]

B: 復次[ㅋ]諸貪欲者[ㅣ]者[xㅅㄱ]此[ㄱ]是捻句[ㅀ]

C: 復 次ㅋ 諸 貪欲者(ㅛ)ㅣ{者}xㅅㄱ 此ㄱ 是 捻句(ㅛ)ㅀ

D: 또 다음으로 모든 貪欲者다 함은, 이는 捻句이며

E: 탐내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,

<유가08 16:04-06>

A: 由[역독선]猛利貪[34(·),=24(·),51(·)]者[23~33(··)]謂於他[23(·)]所有[22~23(·),33(\),44(·)]由貪增上[+45(/),=22(·),경계선]欲爲己[23

4) 서민욱(2005가)에서는 [11(\)]으로 보고 [ㄴㄱㅊ]로 해독하였다. 즉 "說ㄴㄱ{如}ㅊㅅㄱ"으로 해독하였다.

5) 종이가 닳아서 [22~32(·)]이 보이지 않는다.

(·)]有[22~23(·)#22~23(.·),11~21(-),24(·),31(·)]起決定執[34(·),43(丨)]故[55(·)]

B: 由猛利貪[乙,氵,丨]者[x入ㄱ]謂於他[ㅋ]所有[ㅗ,ノㄱ,十]由貪增上[尸入乙,氵]欲爲己[ㅋ]有[ㅗ,ㅌ,氵,人]起決定執[乙,ㅊㄱ入灬]故[ク]

C: 猛利貪乙 由氵丨{者}x入ㄱ 謂 {於}他ㅋ {有}ㅗノㄱ 所十 貪 增上(ン)尸入乙 由氵 己ㅋ {有}ㅗㅌ {爲}氵{欲}人 決定執乙 起ㅊㄱ入灬{故}ク

D: 猛利貪을 말미암다 함은, 즉 남의 가진 바에 대해서 貪 增上하는 것을 말미암아 자기의 가진 바 삼고자 決定執을 일으키는 까닭이며

E: 아주 몹시 탐낸다 함은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하여 탐욕의 왕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하여 결정적인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6:06-08>

A: 於財[51(·)][6]者[23~33(··)]謂[33(·)]世俗財類[44(·),+15~25(/),55(·)]具[51(·)]者[23~33(··)]謂所[역독선]受用[+15~25(-),42(·)]資具[=33~43(·),53(·)]卽此二種[34(·)]捻[45(·)]名[=54(·)]爲物[53(·),55(:)]

B: 於財[丨]者[x入ㄱ]謂[ㄱ]世俗財類[十,尸矢,ク]具[丨]者[x入ㄱ]謂所受用[ノ尸,七]資具[卩,ㅗ]卽此二種[乙]捻[ㅋ]名[下]爲物[ㅗ,xク[7]]

C: 於財(ㅣ)丨{者}x入ㄱ 謂ㄱ 世俗財類十(ン)尸矢ク 具(ㅣ)丨{者}x入ㄱ 謂 受用ノ尸 所七 資具卩ㅗ 卽 此 二種乙 捻ㅋ 名下 {爲}物ㅗxク

D: 於財다 함은, 즉 世俗財類에 대해서 하는(있는) 것이며, 具다 함

---

6) '於'와 '財' 사이에 합부로 보이는 각필선의 흔적이 있는 듯도 하다.
7) 금광명경에서 '55(:)'은 'ㅌㅋク'에 대응한다.

은, 즉 受用하는 바의 資具이니, 곧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이름하여 物이라고 하며

E: 재물에 대하여라 함은 세속의 재물들을 말하며, 도구라 함은 수용하는 바의 살림 도구이니, 곧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물건이라고 한다.

<유가08 16:08-16:09>

A: 凡[23(·)]彼[22~32(·)?]所有[22~23(·),33(\),34(·)?]定[21(·)[8)]]當[32~42(·)]屬我[23(·),44(·),24(·)?[9)],+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{23(·)}[10)]此顯[역독선]貪欲[23(·)]生起[24(\),42(·)]行相[=34(·),55(:)]

B: 凡[ㅋ]彼[ㅐ]所有[ㅛ,ㅅㄱ,ㄹ]定[ㅱ]當[ㅅ]屬我[ㅋ,ㅓ,ㅅㅐ[11)],尸矢,ㅣ]者[xㅅㄱ]此顯貪欲[ㅋ]生起[ㅅㅎ,ㅌ]行相[ㄹ,xㅀ]

C: 凡ㅋ 彼ㅐ {有}ㅛㅅㄱ 所ㄹ 定ㅱ 當ㅅ 我ㅋㅓ 屬ㅅㅐ尸矢ㅣ {者}xㅅㄱ 此(ㄱ) 貪欲ㅋ 生起ㅅㅎㅌ 行相ㄹ 顯xㅀ

D: 무릇 그가 가진 바를 반드시 나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함은, 이는 貪欲의 生起하는 行相을 나타냄/내는 것이며

E: 무릇 그의 소유를 반드시 나에게 소속되도록 하여야겠다 함은 이는 탐욕이 생기는 행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며,

---

8) 21보다는 약간 높은 듯도 하여 '11(·)'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듯하다. 자토석 독구결에는 '定'이 부사로 쓰인 예가 없다.

9) '我'자의 마지막 획에 붙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.

10) <유가사지론> 권8 16장 8행의 난하에 역사선이 길게 그어져 있는데 그 기능은 미상이다.

11) 'ㅅㅐ'는 주로 '23~24(·)'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24(·)에 찍힌 점을 고려할 때 혹 '屬'을 '브티-'정도로 읽고 그 말음 'ㅐ'를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.

<유가08 16:09-16:10>

A: 此中[22(·),42(·)]略義[22~32(·)]者[15~25(-),23~33(·)]當知[51(·)]顯示[12]貪欲自性[31(·)]貪欲所緣[31(·)]貪欲行相[31(·),34(·),33~43(:)[13],+11(·)]

B: 此中[ㅈ,ㄴ]略義[ㅂ]者[尸,入ㄱ]當知[ㅣ]顯示貪欲自性[人]貪欲所緣[人]貪欲行相[人,乙,x印,丁]

C: 此 中ㅈㄴ 略義ㅂ{者}尸入ㄱ 當(ㅅ) 知(ㅎ)ㅣ 貪欲自性人 貪欲所緣人 貪欲行相人乙 顯示x印丁

D: 이 중의 略義인 것은, 반드시 알아야 한다, 貪欲自性과 貪欲所緣과 貪欲行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.

E: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 탐욕의 제성품과 탐욕의 반연하는 바와 탐욕하는 행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 알아야 하리라.

<유가08 16:11>

A: 復次[23(·)]瞋恚心者[51(·)]者[23~33(··)]此[33(·)]是捻句[22~32(·),55(·)]

B: 復次[ㅋ]瞋恚心者[ㅣ]者[x入ㄱ]此[ㄱ]是捻句[ㅂ,ㅁ]

C: 復 次ㅋ 瞋恚心者(ㅂ)ㅣ{者}x入ㄱ 此ㄱ 是 捻句ㅂㅁ

D: 또 다음으로 瞋恚心者다 함은, 이는 捻句이며

E: 성내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,

<유가08 16:11-13>

A: 惡意分別[51(·)]者[23~33(··)]謂於他有情[23(·)]所[44(·)]由瞋恚增

12) '顯示'에 2자합부 역독선의 흔적이 있는 듯도 하다.

13) '33~43(:)'은 '33(·),33~43(·)'(ㄱ,印)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첫번째 점이 일반적인 33 위치보다는 약간 낮게 찍힌 점과 두 점이 비교적 가깝게 찍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'33~43(:)'으로 처리하였다.

上力[34(·),22(·)]欲爲損害[34(·),31(·),삐침선(22,\)]起[역독선]決定執[34(·),43(ㅣ)]故[55(·)?]

B: 惡意分別[ㅣ]者[xㅅㄱ]謂於他有情[ㅋ]所[十]由瞋恚增上力[乙,ㅋ]欲爲損害[乙,人]起決定執[乙,ㅊㄱ ㅅ〻]故[ㅁ]

C: 惡意分別(ㅂ)ㅣ{者}xㅅㄱ 謂 {於}他 有情ㅋ{所}十 瞋恚增上力乙 由ㅋ 損害乙 爲{欲}人 決定執乙 起ㅊㄱ ㅅ〻{故}ㅁ

D: 惡意分別이다 함은, 즉 다른 有情에게 瞋恚 增上力을 말미암아 損害를 (끼치게) 하고자 決定執을 일으키는 까닭이며

E: 나쁜 뜻으로 분별한다 함은 다른 유정에게 대하여 성냄의 왕성한 힘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끼치려 하여 결정적인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6:13-14>

A: 當煞[51(·),2자합부]者[23~33(··)]謂欲傷害[2자합부-역독선]其身[34(·),31(·),+15~25(/),55(·)]

B: 當煞[ㅣ]者[xㅅㄱ]謂欲傷害其身[乙,人,尸矢,ㅁ]

C: 當煞(ㅂ)ㅣ{者}xㅅㄱ 謂 其 身乙 傷害(ㄴ){欲}人(ㄴ)尸矢ㅁ

D: 當煞이다 함은, 즉 그 몸을 傷害하고자 함/하는 것이며

E: 죽여야겠다 함은 그의 몸을 상해하려 함이며,

<유가08 16:14>

A: 當害[51(·),2자합부?]者[23~33(··)]謂欲損惱[2자합부-역독선]其身[34(·),31(·),+15~25(/),55(·)]

B: 當害[ㅣ]者[xㅅㄱ]謂欲損惱其身[乙,人,尸矢,ㅁ]

C: 當害(ㅂ)ㅣ{者}xㅅㄱ 謂 其 身乙 損惱(ㄴ){欲}人(ㄴ)尸矢ㅁ

D: 當害다 함은, 즉 그 몸을 損惱하고자 하는 것이며

E: 해쳐야겠다 함은 그의 몸을 괴롭게 하려 함이며,

<유가08 16:14-15>

A: 當爲衰損[51(·),4자합부[14]]者[23~33(··)]謂欲令彼財物[34(·)]{31(·),25(/)}損耗[23~24(·)#24(·),31(·),+15~25(/),55(·)]

B: 當爲衰損[ㅣ]者[xㅅㄱ]謂欲令彼財物[乙]損耗[ㅇㅣ,人,尸矢,分]

C: 當爲衰損(ㅣ)ㅣ{者}xㅅㄱ 謂 彼 財物乙 損耗{令}ㅇㅣ{欲}人(ㄴ)尸矢分

D: 當爲衰損이다 함은, 즉 그 財物을 損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

E: 손해를 끼쳐야겠다 함은 그의 재물이 소모되게 하려 함이며,

<유가08 16:15-17>

A: 彼[33(·)]當[32~42(·)]自[43(·)]獲種種憂惱[34(·),51~52(.·)]者[23~33(··)]謂[33(·)]欲令彼[43(·)]自[43(·)]失[역독선]財[15]物[34(·),24(·),31(·),+15~25(/),51(·)]

B: 彼[ㄱ]當[ㅅ]自[ㅠ]獲種種憂惱[乙,xㅣ]者[xㅅㄱ]謂[ㄱ]欲令彼[ㅠ]自[ㅠ]失財物[乙,ㅇㅣ[16],人,尸矢,ㅣ]

C: 彼ㄱ 當ㅅ 自ㅠ 種種 憂惱乙 獲xㅣ{者}xㅅㄱ 謂ㄱ 彼ㅠ 自ㅠ 財物乙 失{令}ㅇㅣ{欲}人(ㄴ)尸矢ㅣ

D: 그는 반드시 스스로 갖가지 憂惱를 얻는다 함은, 즉 그로 (하여금) 스스로 財物을 잃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.

E: 그에게 스스로 갖가지 조심과 괴로움을 얻게 해야겠다 함은 그가 스스로 재물을 잃게 하려 함이며,

---

14) '當'에 합부선이 불확실하나 '爲' 위로 합부선이 길게 뻗쳐 나가 있다.

15) 16행 난하의 왼쪽에 긴 역사선이 각필로 그어져 있다.

16) 원문에 '令'이 있어 'ㅇㅣ'로 파악하였으나 '23~24(·)'가 아닌 '24(·)'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사동사로 쓰인 '失'의 말음 'ㅣ'(기원적으로는 사동접미사)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. 사동사는 아니지만 "衆生ㅣ {於}見乙 失ㅣㅈㄱ乙 世尊ㅣㄷㅋ 能分 濟度ㄴㄷㅁ乙分 <금광13:04-07>"에서 '失'에 말음 'ㅣ'가 쓰인 예를 볼 수 있다.

<유가08 16:17>

A: 此[42(·)]中[22(·),42(·)]略義[22~32(·),15~25(-),23~33(·)]如前[23(·),11~21(\),33~43(/)]應知[42(\),51(·)]

B: 此[ㅊ]中[ㅋ,ㅊ]略義[ㅛ,ㅁ,ㅅㄱ]如前[ㅋ,ㅅㄱㅂ?,ㅅㄱ 卬]應知[ㅅㅎㅊ,ㅣ]

C: 此ㅊ 中ㅋㅊ 略義ㅛㅁㅅㄱ 前ㅋㅅㄱㅂ {如}(ㅈ)ㅅㄱ 卬 知ㅅㅎ {應}ㅊㅣ

D: 이 중의 略義인 것은, 앞에서 (말)한 것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.

E: 이 중에 간략한 이치는 앞에서와 같은 줄 알아야 하리라.

참고문헌

김성주(2005), 「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6)」, 『구결연구』 14집, 구결학회, 213-232.

김영욱(2001), 「유가사지론 점토(點吐)의 해독 방법 연구」, 『구결연구』 7, 구결학회, 57-77.

남풍현(1999), 『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』, 태학사.

박진호(2004), 「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2)」, 『구결연구』 12집, 구결학회, 216-231.

서민욱(2005가), 「유가사지론 권5·8의 점토구결 연구」,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.

서민욱(2005나), 「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5)」, 『구결연구』 14집, 구결학회, 197-212.

동국역경원(1995), 『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 1』.

이승재(2001), 「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」, 『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(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)』, 태학사.

이승재·안효경(2001), 「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-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-」, 『구결연구』 9, 구결학회, 115-145.

이 용(2004), 「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3)」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

학회, 233-247.
이전경(2004), 「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4)」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221-243.
장경준(2002), 「점토석독구결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응 구결점에 대하여 -유가사지론 권5,8을 대상으로-」, 『구결연구』 9, 구결학회, 205-225.
장경준(2004ㄱ), 「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)」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학회, 192-212.
장경준(2004ㄴ), 「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」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149-174.
장경준(2005), 「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방법 연구-권5, 8의 단점(單點)을 중심으로-」,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.

〔136-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49-1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〕
E-mail: idhsy@sungshin.ac.kr
접수일자: 2005. 12. 23.
게재결정: 2006. 01. 25.

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

-Focusing on vol. Ⅷ. 15:04-16:17-

Hwang, Seon-yeop

This paper surveys the brief textua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 vol. 8,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.

*Key words: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, cipher kugyol(點吐口訣)